

DIT를 사용한 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도덕판단력에 대한 연구

김윤정[†]

목포과학대학 치위생과

A Study of Moral Judgment of Dental Hygiene Student Using DIT Test

Yun-Jeong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okpo science college, Mokpo-city 530-730,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oral judgment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in Korea.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in March, 2008. The Korean version of the DIT(Defining Issues Test) was adopted to evaluate levels of moral judgment, which was measured by the score of P(%). The data were analyzed by a t-test,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P(%) was 41.16. 2) The score of P(%)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family form($p = 0.003$).

Key words Dental hygiene student, DIT, Moral judgment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생명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소비자의 권리신장과 함께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윤리적 가치관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개인주의의 팽배와 도덕적 위기상황에 함께 직면하고 있다¹⁾. 이러한 윤리와 도덕적 위기는 도덕 판단력 수준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체계적인 윤리교육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²⁾. 도덕 판단력 수준의 향상은 대학생활 동안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윤리교육을 통하여 도덕 판단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3,4)}. 도덕 판단력은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을 기초로 한 Defining Issues Test(DIT)⁵⁾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로 표현된다. 즉 도덕 판단력이 높은 사람이 그만큼 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도덕 판단력 수준이 높은 의사가 윤리적인 직무수행을 더 잘 할 수 있다⁶⁾. 이러한 이유로 도덕 판단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DIT를 활용한 연구는 주로 간호 대학생⁶⁾, 의과 대학생⁷⁾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며,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도덕 판단력 검사를 사용하여 치위생과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고, 그들의 도덕

판단력에 차이를 나타내는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도덕성 향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윤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8년 3월 1일부터 2008년 3월 28일에 목포시,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2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을 유한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267명을 임의표집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인 도덕 판단력 검사지(DIT)는 문용린⁸⁾이 번역한 간편 한국형 DIT를 사용하였다. 여섯 가지 모두를 사용한 경우와 세 가지 갈등만 사용한 간편형 DIT를 비교한 결과 P(%) 점수의 상관관계가 .93으로 나타나 도덕성 발달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간편 한국형 DIT가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⁹⁾.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267부 중 검사에 완전히 응답하지 않은 4부를 제외한 263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2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도구개발자의 지침에 따라 부호화하여 입력한 후 입력된 자료를 서울대학교

[†]Corresponding author
Tel: 061-270-2576
Fax: 061-270-2723
E-mail: tokyj@hanmail.net

사범대학 교육학과 도덕심리발달 연구소로 보내 DIT도구를 통해 산출해 낼 수 있는 P(%) 점수를 요청하였다. 2단계 분석은 도덕심리발달 연구소로부터 보내 온 개인별 DIT점수의 피험자 신뢰도에 대한 내적점검으로 도덕판단 검사문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료를 제외했을 때 최종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34명을 제외시킨 229명으로 SPSS 1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Duncan-test로 사후검정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225명(98.3%)이 여성이고, 종교는 무교가 119명(52.0%)이었다. 연령은 21세 이상이 135명(59.2%), 학년은 3학년이 89명(38.9%)으로 많았다. 형제·자매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형제·자매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가 64.5%를 차지하였고, 응답자들의 출생 순위는 첫째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교적 고루 분포하였다. 성장기의 가족형태는 본인을 포함하여 자녀와 부모로 구성된 핵가족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이 87.5%를 차지하였고, 성장지역은 대도시가 40.4%로 나타났다.

Table 1. The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29)

Item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Female	225	98.3
	Male	4	1.7
Age [#]	≥20	93	40.8
	<20	135	59.2
Religion	Theist	100	48.0
	Atheist	119	52.0
Grade	Freshman	74	32.3
	Sophomore	66	28.8
Number of sibling [#]	Juniorn senior	89	38.9
	≥2	147	64.5
Birth order [#]	≤3	81	35.5
	The first born	116	50.9
Family form in growth period [#] (including the subject)	The eldest	112	49.1
	Parents + 1 child	19	8.4
Growth area [#]	Parents + children	178	79.1
	Grandparents+Parents+children	28	12.5
Growth area [#]	City	92	40.4
	Town	83	36.4
	Country	53	23.2

[#]: except missing

Table 2. The results of the subjects' DIT

Dental hygiene students	
P(%) scores	41.16

Table 3. The DIT scores by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em	Category	P(%) scores	
		Mean(±SD)	p-value
Gender	Female	41.36 ± 15.62	0.150
	Male	30.00 ± 13.06	
Age	≥20	40.89 ± 15.89	0.791
	<20	41.46 ± 15.49	
Religion	Theist	40.92 ± 16.58	0.823
	Atheist	41.38 ± 14.75	
Grade	Freshman	43.24 ± 14.89	0.282
	Sophomore	39.02 ± 17.95	
Number of sibling (including the subject)	Juniorn senior	40.99 ± 14.28	0.733
	≥2	41.53 ± 14.99	
Birth order	≤3	40.79 ± 16.66	0.877
	The first born	41.00 ± 15.92	
Family form in growth period (including the subject)	The eldest	41.33 ± 15.38	0.003*
	Parents + 1 child ^{AB}	36.84 ± 15.69	
Growth area	Parents + children ^B	42.75 ± 15.60	0.138
	Grandparents+Parents+children ^A	32.85 ± 12.92	
Growth area	City	43.19 ± 16.39	0.138
	Town	38.50 ± 15.10	
	Country	41.60 ± 14.81	

*: p<0.05, p-value was by t-test, ANOVA

^{A, B}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with same superscrip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α=0.05

2. 대상자의 도덕 판단력 수준

연구대상자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도덕 판단을 내릴 때 원리에 입각한 추론을 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P(%) 점수는 41.16으로 나타났다.

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도덕 판단력의 차이

연구대상자인 치위생과 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도덕 판단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 점수는 성장기의 가족형태를 제외하고는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성장기의 가족형태(본인 포함) 중,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사는 경우는 42.75±15.60로 높았고, 조부모와 같이 사는 대가족 형태의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는 32.85±12.92로 낮게 나타났다(p=0.003).

고 찰

도덕적 사고의 수준을 측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상자가 어느 단계의 사고를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다양한 도덕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즉 도덕적 사고의 발달은 각 발달단계가 질적으로 상호 구분되기는 하지만 발달단계에 속하는 사고의 출현 빈도는 양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¹⁰⁾.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 수준을 측정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치위생과 학생들의 도덕판단력인 P(%) 점수의 평균은 41.16으로, 한국인 표준 집단¹¹⁾ 44.97, 의과대학생⁷⁾ 46.80, 일반 대학생¹²⁾ 45.99보다 다소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개인의 인지적 변인과 성장과정 및 역사적, 문화적 환경의 변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단면적인 결과이므로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DIT는 어느 정도 타당성있는 객관화된 도구이므로 점수의 차이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치위생과 교과과정 안에서 치과위생사로서의 직업윤리는 물론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종교에 따른 P(%) 점수는, 종교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종교 유무별 도덕 판단력 지수를 비교한 Rest¹³⁾와 Kohlberg¹⁴⁾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간호학을 대상으로 한 이 등⁶⁾의 연구에서는 종교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천주교인(32.22±12.83)이 다른 종교인(기독교 44.12±14.75, 불교 45.63±11.89)에 비해 도덕 판단력 지수가 의미있게 낮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종교와 도덕 판단력 간의 관계는 좀더 많은 추후연구를 통하여 그 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성별에 따른 도덕 판단력은 여학생 41.36±15.62, 남학생 30.00±13.06로 여자가 높게 나타나, 남·여 고등학생간의 성별에 따른 도덕 판단력을 살펴 본 오⁹⁾의 연구결과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도덕 판단력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의 수가 너무 적어(4명) 우리나라 치위생과 남학생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성별과 도덕 판단력 간의 관계 역시 향후 많은 연구를 통하여 그 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출생 순위에 있어서는 본인이 첫째가 아닌 경우가 41.33±15.38로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장시 가족형태에서 조부모를 포함하여 3세대가 함께 사는 가족은 32.85±12.92로 가장 낮았고,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은 42.75±15.60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3세대 이상의 가족형태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참여와 도덕 판단력의 관계를 연구한 Keasey¹⁵⁾의 연구에서 사회적 참여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덕 판단력이 높아진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과거와 달리 가족 내에서 조부모의 역할감소와 손자·손녀에 대한 영향력 부재가 도덕 판단력의 감소로까지 이어졌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핵가족 형태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비율이 80% 이상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연령에 따른 도덕 판단력은 21세 이상 연령집단이 41.46±15.49로 20세 이하 연령집단(40.89±15.89)에 비해

낮았고, 형제·자매 수에 따른 도덕 판단력은 형제·자매 수가 2명 이하인 경우가 41.53±14.99로 형제·자매 수가 3명 이상인 경우(40.79±16.66)보다 높았으나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성장지역에 따른 도덕 판단력은 이 등¹⁰⁾의 연구에서와 같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들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년제에 따른 도덕 판단력은 1학년 학생(43.24±14.89)이 2학년 학생(39.02±17.95)과 3학년 학생(40.99±14.28)에 비해 높았다. 1학년 학생이 높게 나온 것은 간호학을 대상으로 한 이 등⁶⁾의 연구결과(1학년 45.82±14.37, 4학년 42.32±10.66)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 등⁶⁾은 우리나라 의료전문의의 지적 환경이 매우 보수적이고 정형화된 모범적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그 외의 행동이나 판단은 통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교육에 의해서 의료윤리 문제를 개인적 사고내에서만 경험하지 않고, 딜레마가 있는 현실적 상황과 마주침으로써 윤리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다¹⁷⁾. Fotion¹⁸⁾은 윤리교육을 통하여 직관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의 수준을 높여야 하며, 학생교육의 전반에 걸쳐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계속 교육이 요구되고 사례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보편적인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교과과정이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장차 치과위생사가 되어 치과 의료현장에서 많은 윤리적 문제를 직면하게 될 치위생과 학생들의 윤리성이나 도덕성 또는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과목들을 통하여 교과과정 중에 적극적인 윤리교육과 실제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해 광범위하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윤리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사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측정 척도의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¹⁹⁾.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일부 변수들을 더욱 다양화하여 종단적 연구와 초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가 수행이 된다면 치과위생사들의 도덕 판단력을 상승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2개 대학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형 도덕 판단력 검사지(DIT)를 사용하여 2008년 3월 1일부터 2008년 3월 28일에 그들의 도덕 판단력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들의 도덕 판단력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위생과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 지수는 평균 41.16으로

로 다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

- 연구대상자들의 도덕 판단력은 성장기의 가족형태를 제외하고는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사는 경우(42.75±15.60)가 조부모와 같이 사는 대가족 형태의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32.85±12.92)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DIT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치위생과 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2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참고문헌

- Kwon YM: A study on moral judgement and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8(1): 17-28, 2002.
- Han SS, Ahn SH: Moral Reasoning and ethical decision making among student nurses in moral dilemmas. *J Korean Acad Nurs Admin* 1(1): 5-21, 1995.
- Duckett L, Rowan M, Ryden M, Krichbaum K, Miller M, Wainwright H, Savik K: Progress in the moral reasoning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between program retry and exit. *Nurs Res* 46(4): 222-229, 1997.
- Self DJ, Oliveraz M, Baldwin DC: Clarifying the relationship of medical education and moral development. *Acad Med* 73(5): 517-520, 1998.
- Rest JR: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150-162, 1979.
- Lee MA, Kim IJ, Hong SH: A study of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 using DIT test. *Korean J Med Ethics Educ* 8(2): 105-115, 2005.
- Hong SH: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Docto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Moon YL: A study of test item bias in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development: gender bias in the defining issues test. Docto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87.
- Oh GR: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mor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by the parents' rearing behaviors and gender.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2.
- Rest JR: "Morality" in Flavell J. H&E. M Markma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ve Development.* vol 3. NY. : John Wiler&Sons, pp.556-629, 1983.
- Moon YL: A study of diagnosis of moral development in Korean adolescents. Research Paper. Korean Research Foundation, 1994.
- Won HJ: A study on the moral self and the moral action choice.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 Rest JR, Barnett R, Bebeau M, Deemer D, Getz L, Schlaefli J, Thoma S, Volker J: Moral development :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 Praeger press. pp.75-81, 1986.
- Kohlberg L: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NY: Harper&Row, pp.124-135, 1984.
- Keasey CB: Social participation as a factor in the moral development of preadolescents. *Development Psychology.* pp.216-220, 1971.
- Lee MA, Ahn SH, Kang YS, Seomun GA, Shin MJ: An evaluation of the level of moral development of clinical nurses in Korea. *Korean J Med Ethics Educ* 9(1): 73-84, 2006.
- Kim IJ, Sung NJ, Jung KH, Bae GR, Park KU, Kim DG, Hong SH: Effect of the medical ethics education evaluated by DIT Test. *Korean J Med Ethics Educ* 8(2): 95-104, 2005.
- Fotion N: Medical ethics education. Yonsei University Press. pp.607-629, 1986.
- Ahn SH, Han SS, Kim CH: A study of moral reasoning by the defining issues test among medical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in* 2(2): 85-95, 1996.

(Received May 23, 2008; Accepted September 23, 2008)



부 록

DIT 설문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이 설문지의 결과는 컴퓨터로 처리되어 집단 점수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여러분의 이름이나 질문에 대한 생각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3개의 짧은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려는 12개의 질문들이 각각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보기>를 잘 읽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고민>

한 부인이 이상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암이라고 말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약국 주인은 그 약을 만드는 데 돈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값을 아주 비싸게 요구했다. 그래서 남편은 약값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약 값의 반밖에 벌지 못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약국에 가서 주인에게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약을 반값에 주세요. 나머지 반값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애원했지만, 주인은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라고 거절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많은 걱정을 하다가, 약을 몰래 훔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 (1) 만약 당신이 이 남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① 훔친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훔치지 않는다 ()
 (2) 남편의 훔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①-매우 중요, ②-대체로 중요, ③-약간 중요, ④-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전혀 중요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질 문
					1. 이유가 무엇이든 법이 정한 일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2.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약을 훔쳐서 아내를 살려야 하지 않을까?
					3. 그 약을 먹어도 아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감옥에 갈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4. 부모님이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고 하셨으니, 약을 훔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5.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칠까? 아니면 남편인 자신을 위해서 약을 훔칠까?
					6. 그 약을 만든 약국 주인의 노력과 고생도 중요하지 않을까?
					7. 약을 훔치다 잡히면 감옥에서 오랫동안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8. 아내와 남편은 각자 서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9. 남편이 약을 훔친 것을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게 되면 화를 많이 내지 않을까?
					10. 이럴 때, 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11. 약국 주인은 너무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쁘니까, 도둑을 좀 맞아도 되지 않을까?
					12. 약을 훔쳐서라도 아내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닐까?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 가장 중요한 질문의 번호 ()
- 둘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 셋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 넷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탈옥수>

어떤 사람이 10년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1년을 살다가 감옥에서 도망을 쳤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8년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부자가 된 그는 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월급도 잘 주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어 훌륭한 부자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부인이 이 부자가 감옥에서 도망친 범인이라는 것을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아직도 그를 체포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인이 이 부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그 부자의 회사는 망할 것이고, 더 이상 좋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부인은 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망설이고 있다.

- (1) 만약 당신이 이 부인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① 고발해야한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고발하면 안 된다 ()
- (2) 부인의 신고를 할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①-매우 중요, ②-대체로 중요, ③-약간 중요, ④-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전혀 중요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질 문
					1. 감옥에서 도망친 후 그가 한 8년간의 착한 일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
					2. 감옥에서 도망쳐도 잡히지 않으면, 감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범인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3. 벌을 다 받지 않고 감옥에서 도망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닐까?
					4. 그 범인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범을 어긴 일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5. 그 부자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일은 그 사람이 한 착한 일을 무시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6. 감옥에서 도망치다가 걸리면 더 큰 벌을 받으니까 도망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7. 그 사람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인정이 없고 나쁜 것인가?
					8. 신고하지 않으면, 도망치지 않고 감옥에서 착하게 벌을 받고 있는 다른 범인들에게는 억울한 일이 아닐까?
					9. 이 일을 알기 전에, 그 부인은 이 범인과 어느 정도 친하게 지냈는가?
					10. 이유야 무엇이든 간에 도망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 아닌가?
					11. 한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12.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그 범인을 위해서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 가장 중요한 질문의 번호 ()
- 둘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 셋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 넷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환자의 애원>

어느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려 6개월 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 이 암은 그 여자를 너무 아프게 했다. 너무너무 아파서 그 여자는 정신을 잃기까지 한다. 강한 진통제를 주면 덜 아프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환자를 오히려 더 빨리 죽게 할 염려가 있었다. 가끔 고통이 멈추었을 때 이 환자는 조금 많은 진통제를 주어서 아픔 없이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여자는 너무 아파서 참기도 힘들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편안하게 죽게 도와달라고 의사에게 울면서 부탁했다. 의사는 이 환자의 애원대로 고통 없이 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1) 만약 당신이 이 의사의 입장에 놓인다면, 당신은 이 환자의 애원을 어떻게 하겠는가?

- ① 들어 준다 () ② 잘 모르겠다 () ③ 들어주면 안 된다 ()

(2) 환자의 애원을 들어줄까 말까 하는 결정에 다음의 질문들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 (①-매우 중요, ②-대체로 중요, ③-약간 중요, ④-별로 중요하지 않음, ⑤-전혀 중요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질문
					1. 환자의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통제를 주어서 사람이 죽게 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처럼, 의사가 그렇게 해도 똑같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닐까?
					3.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하느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
					4. 의사가 실수한 것처럼 일을 꾸며서 환자의 부탁을 들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5. 나라의 법은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을 억지로 못 죽게 할 권리가 있을까?
					6.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배우지 않았나?
					7. 의사는 환자를 덜 아프게 해주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가?
					8. 사람이 편안하게 죽게 도와주는 일이 어떤 때는 더 좋은 일이 아닌가?
					9. 오직 하느님만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10. 의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가?
					11. 어떤 사람이 스스로 죽고 싶어 할 때, 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죽게 허락할 수 있을까?
					12. 사회는 자살을 허락하면서, 또 살고 싶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하는 반대되는 두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3) 위의 질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개의 질문을 고른 후, 중요한 순서대로 그 질문의 번호를 쓰시오.

- 가장 중요한 질문의 번호 ()
 둘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셋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
 넷째로 중요한 질문의 번호 ()